

지자체 우후죽순 테마파크 조성 제동

전남도, 여수·순천 등 34개 사업 2724억 투·융자 심사 과도한 투자 걸러내기... 19건 조건부 통과·부적정 판정

전남지역 시·군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줄지어 테마파크 조성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지방재정에 비해 과도한 투자라며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 걸러 내고 있다. 사업계획 조정, 이용객 산정 및 손익분석 미흡, 민자유치 필요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시·군이 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해 전남도가 견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는 최근 여수·순천·나주·곡성 등 각 시·군이 제출한 34개 사업(총사업비 2724억원)에 대해 제3차 정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국비 48억원, 시비 48억원 등 96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여수시의 '여자만 갯노을길 조성사업', 국비 24억원과 시비 43억원 등 67억원의 나주시 '구 나주잡사 활용 근대화 재생사업' 등 15건에 대

해서는 '적정' 판정을 내렸다. 또 고흥 도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60억원), 보성 신평면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40억원), 화순 세계 거석 테마파크 조성(50억원) 등은 중기 지방 재정계획 반영, 주변 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등을 조건으로 간신히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2년 연속 투·융자 심사를 받고 있는 순천의 '용계산 자유의 숲 조성사업'(50억원)은 물론 고흥 '절이만 갯노을길 조성사업', 국비 24억원과 시비 43억원 등 67억원의 나주시 '구 나주잡사 활용 근대화 재생사업' 등 15건에 대

검토 결론이 내려져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들 시·군이 보완한 뒤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검토 사유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 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민자 유치 추진 방안 및 적정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차 심사에서도 담양군 아시아문화공연장 건립(50억원), 신안군 해저유물 테마파크(80억원) 및 암태 암석정원 조성 등이 재검토나 부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여수·순천·광양 무료 환승 추진

3개시 행정협의회 안전 채택

광역교통망·생활체육 교류 등

전남 동부권의 여수·순천·광양 등 3개시가 무료 환승체계 등 광역교통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수·순천·광양 등 3개시는 오는 12월 7일 만에 재개하는 행정협의회 개최 준비를 위해 지난 30일 광양시청 상화실에서 두 번째 실무회의를 열고 모두 7개 의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담당 과장과 팀장 등 21명의 참석자는 생활체육 교류와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 등 2건을 조건부 동의하고 ▲광역관광 활성화 추진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 ▲예술단 순회공연 추진 ▲광양만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채택 ▲차기 협의회 회장 선출 등 5건을 원안 동의하는 등 모두 7건을 최종 의제로 선정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조건부 동의 사항인 '생활체육 교류 추진'은 현재 1000만원으로 상정된 사업비가 행사를 추진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을 현실화하고 참가 종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광역교통망 구축'은 여수시의 복잡한 대중교통 현실을 고려해 실무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11월까지 수정 안건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무료 환승시스템 구축 등 즉시 가능한 사업을 순천·광양시가 운송업체와 협의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크루즈관광 활성화' 협의 과정에서 경제·관광·해양수산·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도·시·군·자치구·민간이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는 순천시의 의견을 반영해 실무진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안전 7건을 정리해 오는 12월 17일 3개 시장이 참여하는 본 협의회에 공동 의제로 상정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 외국투자유치 '대통령 기관표창'

'외국기업의 날' 행사서

광양시가 지난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4년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외국 투자유치 공로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장흥군 투자유치팀장도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광양시는 금호동 ㈜SNNC와 ㈜PMC Tech 공장 신설에 총 9억달러의 외국투자 유치를 실현하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내 흑연 전극봉을 생산

하는 중국기업 합작법인과 1000만 달러 투자 MOU를 체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임직원과 유관기관, 주한 외교사절, 외국 상공회의소, 100여명의 방한 투자자와 내·외신 기자단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했다.

'외국기업의 날' 행사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올 한해 투자유치 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300미터 장아찌 김밥 만들어 추억 만들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지난 1일 순창읍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열린 '제9회 순창 장류축제' 행사장을 찾아 300m 길이의 장아찌 김밥을 만들고 있다. 올해 축제는 '자연이 빛은 순창이야기'를 주제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무주 태권도원 진입로 개선 필요"

월례회서 정부건의안 채택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유천규·사진)가 지난 30일 무주군 의회에서 제199차 월례회의를 갖고 '무주 태권도원' 진입도로의 확·포장사업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14개 시·군 의장단과 황정수 무주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2차 전국 시·군·자치구의 의회 의장협의회 시·도 대표회의 결과보고 및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각 시·군의회 공조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심의안건에서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임원 선출을 위한 협의회 회칙 개정(안)'은 수정 가결하고,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임원 선출 건'은 원안 가결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무주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 9월 개원한 무주 태권도원 진입 도로인 국

도 30호선 무주 오산~설천 청량구간(10.9km)이 2차선인데 도로의 선형이 불량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태권도원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6~2020) 대상사업에 반영시켜 차질없이 추진 될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다 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매월 각 시·군을 돌며 개최하고 있다. 제200차 회의는 11월 정수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농촌 주거환경 개선 총력

60억 투입 개량·빈집철거 등

민선 6기 순창군이 낙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59억 7200만원을 투입해 ▲농촌주택 개량(90동) ▲빈집 정비(102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215동)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경우 지난 9월 말 69동은 신축 완료하고, 21동은 신축 중이거나 설계중이다.

또 빈집정비사업 대상중 80동은 철거 완료하고 22동은 철거 작업중이며, 지붕 개량사업 대상 가운데 172동이 완료됐으며 43동은 진행중이다. 미착공 및 미완공 부문은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독

려해 이달 말까지 사업완료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연리 2.7%(만65세 이상 노인인구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동당 최대 6000만원을 융자 지원하며 150㎡ 미만으로 건축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일반 빈집정비와 일반 지붕개량 사업은 100만원, 슬레이트 빈집정비 사업은 250만원을,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340만원을 각 각 보조해준다.

한편 순창군은 현재 수립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반영할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공항 군산~제주간 운항 재개

활주로 공사로 인해 중단됐던 군산공항 민간 항공기(민항기) 운항이 재개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일부터, 대한항공은 2일부터 매일 한차례 군산~제주간 운항을 재개했다.

군산~제주간 민항기 운항은 활주로 공사로 인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

일까지 47일간 중단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활주로 공사로 인해 민항기 운항이 중단돼 시민들이 타 공항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다시 운항이 재개되는 만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축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기림유) • 시공사 | 건해중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흥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